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도전 성공

총 183표 중 156표 얻어
득표율 85.2%로 당선
허정무 15 · 신문선 11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당선증을 받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63)이 비판 여론과 중징계 리스트를 뚫고 대한축구협회 회장 4선 도전에 성공했다.

26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정 회장은 총 투표수(선거인단 192명 · 투표 183명 · 무효표 1표) 183표 중 156표를 얻어 득표율 85.2%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허정무(71) 전 축구대표팀 감독은 15표, 신문선(66)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는 11표에 그쳤다.

정 회장은 1차 투표에서 유효 투표 과반을 얻어 결선 투표 없이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선거인단 192명은 시 · 도협회 및 전국연맹 회장, 프로축구 K리그1(1부) 구단 대표이사 등 당연직 대의원과 이 단체 임원 1명씩을 비롯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뽑힌 선수 · 지도자 · 심판으로 구성됐다.

협회 산하 단체장이 총 66명으로 전체의 34.3%를 차지한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가 정 회장에게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반(反) 정몽규를 외친 두 후보 간 단일화가 불발하면서 표가 분산된 것도 정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로써 정 회장은 2029년까지 축구협회를 4년 더 지휘하게 됐다.

2013년 1월 축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3차례 연임에 성공한 정 회장이 임기를 모두 채운다면 역대 최장 16년간 축구협회를 이끈 정몽준(1993~2009년)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정 회장은 4연임에 도전하면서 △대표팀 감독 선임 방식 재정립 △집행부 인적 쇄신 및 선거인단 확대 통한 지배구조 혁신 △남녀 대표팀 FIFA 랭킹 10위권 진입 △K리그 활성화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 규정 준수 및 협력 관계 구축 △우수선수 해외 진출을 위한 유럽 진출 센터 설치 △2031 아시안컵과 2035 여자월드컵 유치 등을 약속했다.

1994년 울산 현대(현 울산 HD) 구단주를 시작으로 30년 넘게 축구계에 몸담아 온 정 회장은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를 거쳐 2013년 경선을 통해 축구협회 수장을 처음 맡았다.

이후 2선, 3선 때는 단독 입후보로 당선된 뒤 이번엔 12년 만에 선거를 통해 4연임에 성공해 '16년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했다.

정 회장은 이번이 축구협회 회장으로서 마지막 임기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 회장의 임기는 당선증을 받은 이날부터 2029년 초 정기총회일까지 4년이다.

당초 새 축구협회장 임기는 지난달 22일 정기총회일로 예정됐지만, 이번 선거가 허 전 감독의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두 차례 파행을 겪으면서 한 달 이상 늦어졌다. /뉴시스

"올림픽 통해 지역균형발전"

전북자치도,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막판 사활
지속가능, 친환경, 저비용 · 고효율 올림픽에 중점

"국가균형발전 첫 걸음이 될 올림픽, 지속가능 올림픽, 친환경 올림픽, 저비용 · 고효율 올림픽, K-문화 알리는 가장 한국적인 올림픽이 될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2036 하계올림픽 국내후보도시 선정 발표까지 이제 이틀 남았다.

국내후보도시 선정은 오는 28일 열리는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에서 올림픽 정식 종목단체 대의원들의 무기명 비밀 투표로 이뤄지며, 총회 당일 김관영 전북지사가 직접 PT에 나서 전북만의 강점과 차별성 등을 강력하게 설명하고 '최적의 개최지'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전북은 '국가균형발전의 첫 걸음'이라는 비전 아래 '비수도권 연대'를 내세우며 지구촌 최대 축제인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

또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는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전북이 올림픽 도전에 나선 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이 추구하는 선정 기준을 봤을 때 결단코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는 자신감 때문이다.

IOC는 지속가능성과 비용 효율성, 사회적 영향 등을 핵심 가치로 기존 시설 활용과 분산 개최 및 지역 연대, 지속 가능성과 환경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을 증명하듯 IOC는 호주 브리즈번을 우선 협상도시로 선정했고, 이에 2032 올림픽은 브리즈번에서 개최된다. 이 도시는 캔버라나 시드니처럼 정치 · 행정수도도 경제중심 도시도 아니다.

전북은 IOC의 변화의 흐름에 가장 적합하다. 이에 인접 지역 도시 연대와 기존 시설과 임시시설을 적극 활용해 저비용 · 고효율 올림픽을 치른다는 구상이다.

대한체육회의 현지 실사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체육계는 물론이고 민 · 관 · 정이 한마음 한뜻이 돼 올림픽 유치를 염원하고 있다.

국내후보도시 선정은 오는 28일 결정된다.

전북자치도와 전북체육회를 비롯한 도내 모든 각계각층에서는 선정도시가 발표 되는 그날까지 모든 역량을 총동원, 이른바 전북의 힘을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은 "올림픽 유치를 염원하는 전북의 목소리가 분명 전달될 것이며 이뤄낼 것"이라며 "올림픽이 마중물이 돼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2024~25시즌 여자프로농구 플레이오프 내달 2일 돌입

우리은행-KB · BNK-삼성생명 격돌

정규리그 1위 아산 우리은행을 비롯해 부산 BNK, 용인 삼성생명, 청주 KB국민은행이 '하나은행 2024~2025시즌 여자프로농구' 플레이오프 승부를 내달 2일부터 펼친다.

1위를 차지한 우리은행은 4위 국민은행과 2일부터 아산이순신체육관에서, 2위 BNK는 3위 삼성생명과 3일부터 부산사직실내체육관에서 격돌한다. 경기는 5전3승제로 진행된다.

봄 농구에 나서는 4개 구단 감독과 김단비, 이명관(이상 우리은행), 박혜진, 김소니아(이상 BNK), 배혜윤, 이해란(이상 삼성생명), 강이슬, 허예은(이상 국민은행) 등 각 팀 대표선수가 26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의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각오를 전했다.

시즌 전 '약체'라는 예상과 달리 정규리그 정상에 오른 우리은행의 위성우 감독은 "올해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들어와 새 팀이 됐다. 정규리그는 선수들이 열심히 잘해줘서 우승했지만, 포스트시즌은 분명 다를 거라고 생각한다"며 "(포스트시즌을 처음 경험하는 선수들이 많아) 이들에게는 도전이다. '뉴팀, 뉴챌린지'로 재미를 동반한 좋은 경기를 해서 마지막에 꼭 웃는 팀이 되겠다"고 말했다.

개막 전 우승 후보로 평가받았던 BNK의 박정은 감독은 "지난 시즌 정말 아쉬운 시즌을 보냈지만, 비시즌 때 절치부심했고 지금까지 달리고 있다"며 "포스트시즌에는 모든 분의 관심이 (홈구장이 있는) 부산에 몰릴 수 있게, 우리가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객관적인 전력과 선수 구성에서 우리은행과 BNK의 우세가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정규리그에서 국민은행을 상대로 5승1패로 압도했다. 이번 시즌 정규리그 성적에선 삼성생명이 BNK에 4승2패로 우위를 점하지만, 단기전은 다를 거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역대 플레이오프에서 2승으로 BNK가 우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2위로 플레이오프에 올라 챔피언결정전에서 우승했던 우리은행은 이번 시즌 통합 우승을 정조준한다. 우리은행이 이번 챔피언결정전에서 정상에 오르면 구단 통산 11번째 통합 우승을 달성하게 된다.

해당 부문 리그 최다를 달리고 있는 우리은행은 자체 기록 경신을 꾀한다. 우리은행의 마지막 통합우승은 2년 전인 2022~2023시즌이다. /뉴시스

호원대 씨름부, 새 사령탑 선임

'태백장사 출신' 한승민 감독

호원대학교 씨름부가 신임 감독으로 한승민(태백장사 출신)을 선임했다.

이에 따르면 한승민 신임 감독은 선수 시절 뛰어난 기량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며 씨름계에서 주목을 받아 왔다.

한 감독은 1981년생으로 영남대학교를 졸업하고, 2004년 경북 의성군청에 입단해 선수 시절 태백 · 금강 통합장사 1회, 태백장사 6회, 전국체육대회 11회 우승, 대한씨름협회 우수 선수상 4회 등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다. 이후 2016년 수원시청 씨름단에서 학생지도 및 화성시청 지도 등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전문성을 쌓았고, 2021년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은퇴했다.

한승민 감독은 "호원대 씨름부 감독으로 부임하게 돼 큰 영광"이라며 "호원대 선수들의 기량 향상뿐만 아니라 인성과 학업, 스포츠 정신을 함께 함양해 전국 최고 팀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명찬 스포츠단장은 "새로운 지도체제 아래 씨름부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며 "호원 스포츠단은 씨름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승민 신임 감독이 이끄는 호원대 씨름부는 오는 8~14일 문경에서 열리는 제55회 회장기전국장사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